

또 하나의 나, 우리

Vol.71 2015 SUMMER



PLANKOREA
www.plankorea.or.kr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PLAN KOREA Vol.71 2015 SUMMER

- 04 Plan Report**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노동현장에서 학교로 돌아오다
- 06 지구촌을 간다 1**
신혼여행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08 Campaign**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One Ball One Dream
- 10 플랜 긴급구호**
네팔 대지진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 12 아주 특별한 만남**
2015 세계교육포럼 여자아이들의 이야기
- 14 Campaign**
Because I am a Girl 여자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 16 Plan Board**
- 18 우리는 플랜가족**
숲속해달별 어린이집 반짝반짝 빛나는
- 20 지구촌을 간다 2**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그 두번째 이야기
- 22 나눔의 행복**
삼성물산
- 24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미얀마
- 25 Enjoy Plan**
- 26 플랜 소식**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6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 이제 플랜코리아를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플랜코리아>를 검색하고
친구추가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플랜코리아>를 찾아서
팔로우 해주세요!



후원문의 02.790.5436

www.plankorea.or.kr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 이메일 | kno@plankorea.or.kr
| 통권 | 제71호 | 발행일 | 2015.06.23 | 발행인 | 노영찬 | 발행처 |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6월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노동현장에서 학교로 돌아오다

전 세계 1억 6천 8백만 명의 아이들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건강과 안전 및 도덕성에 치명적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은 아동노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제고하여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노동현장이 아닌 마음껏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곳입니다.

아동노동의 주요원인은 가난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5세에서 14세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남자아이들은 주로 농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여자아이들은 주로 가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가사 노동은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의 범주에 속해있지 않거나 주로 일반인의 관심에서 벗어나있어, 가사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랜은 가사 노동을 하는 여자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일하는 집의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했죠.
전 혼자였고,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열쇠로 문을 잠궈버렸어요. 일하는
3년간 한번도 외출하지 못했어요.”

16살 아이차, 나이지리아



“열두 살 때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돈을 버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를 설득하셨죠. 3년 정도
일하다 어머니가 심한 화상을 입어 간병을
하러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가족들의 강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되었죠.”

사미나, 24세, 파키스탄

노동현장에서 학교로 돌아오다

아동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입니다. 국제 노동기구(ILO)에서는 2015년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슬로건을 ‘No To Child Labour - Yes To Quality Education!’으로 정하고, 의무교육과 양질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용품 및 장학금,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교육에 관한 법과 공공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지역 자치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가족들,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노동의 현장에서 여자아이들을 구출하여 직업훈련 교육, 중등 교육 및 소액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벗어나 마음껏 배우고 꿈꿀 수 있도록 플랜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노동 현황



168,000,000 명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



5~14세
120,000,000 명
5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노동 인구



85,000,000 명
가혹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아동

“플랜에서 제공하는 중등교육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여자아이들에게 수업을 열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희망의 불꽃이 되살아났어요.”

사미나





조금 특별한 신혼여행을 꿈꾸다

신혼여행에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비행기 자체를 처음 타보는 내게,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문득 후원아동을 만나보고 싶었다. 후원하면서 사진으로 만나본 아이, 나루에몬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였다.

아동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니 남편은 매우 생소해 했다. 굳이 왜 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지라 장시간 동안 왜 가고 싶은지 남편에게 설명했다. 그 아이와 인연을 맺고 이어오고 있는데 아이가 많이 궁금하다고. 남편도 이해해주었고, 아동방문을 함께 준비했다. 아이에게 줄 선물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사러 다니며, 아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다.

또 다른 가족, 나루에몬을 만나다

후원아동인 나루에몬은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한참 들어간 산간지역에 살고 있었다. 지난 길에 군인이 많이 보여 플랜직원에게 물어보니 미얀마와의 국경 지대라고 했다. 대로를 두 시간 넘게 달리고 또 비포장도로를 삼십 분 넘게 가니 나루에몬의 마을이 나왔다. 소수민족이 사는 그 마을에 우리가 첫 외국인 방문자였다. 마을이 외진 곳이라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곳 같았다. 나루에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루에몬과 그 가족을 만났다. 세 살, 아직 어린아이라서 칭얼대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남 같지는 않았다. 남편과 함께한 방문이라서 그런지 또 다른 가족 같았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나루에몬이 커서 다니게 될 유치원도 방문했다. 이 지역은 한국과는 달리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지 않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보여 안타까웠다. 앞으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루에몬을 부탁해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월급 일부분을 쓰고 싶어져 시작한 아동 후원. 삶에 의미를 더하고 싶어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큰 기쁨이 따라왔다. 스트레스받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책상 위에 둔 아이의 사진을 한 번씩 보면서 힘을 얻었다. 후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선은 지속해서 후원할 예정이다.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크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커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다. 가족 말고도 자기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함께 만드는 추억

아동방문으로 인해 남편과 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남편도 후원에 관심이 생겨서 담뱃값을 아껴서 후원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남편이랑 같이 한 아동을 더 후원하고 싶다. 이번 신혼여행에서 둘이 공유했던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Campaign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ONE Ball ONE Dream



색다른 기부, 재미있는 기부를 꿈꾸고 있다면,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에 참여해보자!

야구 게임에 참여하면 수익금이 기부되어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할 수 있다.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 MBC플러스미디어가 함께 진행 중인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은 스크린 야구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쉬운 캠페인이다. 에버랜드 캠퍼너리 빌리지 내 캠페인 부스에 들려 야구 게임을 하면 수익금이 기부된다. 또한 참가자들이 공을 던지거나 공을 치면, 공의 궤적과 타구 모습이 담긴 즉석사진을 받아 볼 수 있다. MBC플러스미디어의 ‘피칭캠’ 기술을 이용한 공의 궤적과 속도도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더욱 즐겁다.



내가 던진 공이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꿈이 되어
전달된다면?



야구 게임도 하고,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꿈도 지원할 수 있는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에 참여해보자.

의미 있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세리모니에는 플랜코리아의 이상주 대표, 에버랜드 조병학 부사장, MBC플러스미디어 이여춘 이사가 참석해 직접 시타, 시구 시범을 선보였다. 오프닝 세리모니를 축하하기 위해 플랜코리아의 신수지 홍보대사는 자신의 특기인 ‘일루션 시구’를 선보였으며 최근 새롭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정수는 사회를 맡아 힘을 실어주었다.

재미있고 신나는 야구체험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꿈까지 지원할 수 있는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에버랜드 캠퍼너리 빌리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수지 홍보대사의
일루션 시구가 담긴
One Ball One Dream
영상이 궁금하다면

네팔 대지진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 네팔에서 카말라리(kamalari: 아동노예)였던 우르밀라 초드리(Urmila Chaudhary, 23세)는 현재 플랜의 여아권리신장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르밀라는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의 현장에 있었다.



81년 만의 대참사, 네팔 대지진

4월 25일, 네팔에서 81년 만에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복구되기도 전인 5월 12일, 규모 7.3의 2차 지진이 네팔을 덮쳤다. 두 차례의 지진과 80여 차례의 여진으로 네팔의 피해는 점점 커져갔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약 8,700명이 사망하고 2만2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거의 50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플랜은 신두팔초크, 도라카, 마관푸르 지역을 포함해 지진 피해가 큰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기 긴급구호 대응에는 임시주거지, 식수위생, 식량, 보건, 보호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에 플랜은 야외에서 취침해야 하는 가족들이 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34,800개의 타풀린(방수천)과 담요, 매트리스, 모기장을 전달했다. 또한 15,000개 이상의 식료품과 42,650개의 물정화용 아쿠아 탭, 10,600개의 식수 세트를 배포했다. 이 구호품으로 66,300명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158,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네팔 회복의 씨앗, 교육

지진으로 2만5천 개 이상의 교실이 파괴되었고, 1만 개의 교실은 수리가 필요하다. 5월 31일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수업을 재개하였지만,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 소외계층이거나 시골 지역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학교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플랜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손된 학교를 대신해 임시 교육센터를 열었다. 또한 1,200개의 교육 용품(가방, 학용품, 교실 비품 등) 배포와 교사 지원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플랜은 225개 이상의 교육센터를 짓고, 화장실과 수도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센터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여자아이들, 학교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고려해 지어질 것이다.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이다. 플랜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s)을 운영 중이다. 아동친화공간은 즐겁게 놀면서 지진으로 겪은 심리적인 영향을 치료하고,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다.

“지진의 여파로 아이들은 인신매매, 아동노동과 같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할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과 정보도 제공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친구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플랜의 긴급구호 교육 전문가 스웨타 사흐

아이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랜은 아동보호, 교육, 보건, 생계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네팔의 아이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후원하기 ▶

긴급재해지원 ▶ 네팔 카트만두 강진 긴급구호

해피빈 콩 기부하기 ▶ 플랜코리아 해피빈 (네이버 해피빈에서 플랜한국 위원회 검색) ▶ [플랜코리아]네팔 지진 긴급구호



2015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여자아이들의 이야기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세 명의 여자아이들이 플랜을 대표하여 한국을 찾았다. 파키스탄에서 온 히잡(18세)과 자라(13세),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로지(18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자아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알리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5 세계교육포럼 내 전 세계 NGO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인 'NGO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NGO 대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자라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마련한 저녁 연회에 참석하여 자신과 파키스탄 여자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연설해 저녁 연회에 참석한 각 NGO 관계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한 세 명의 여자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플랜코리아를 통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파키스탄과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한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内外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서로 허심坦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플랜의 세 여자아이들이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야기, 특히 여자아이로서 겪는 차별적 문제 등에 대해 토로하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각 나라와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아 두어 시간 남짓 허락된 시간이 무엇보다 아쉬웠던 방문이었다.

플랜코리아는 세계교육포럼의 부대행사로 세계시민교육 전시관 내 부스를 운영하여 여자아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인 Because I am a Girl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중 유일하게 일반인 참석이 가능해서인지 국내의 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부스는 3일 내내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다. 부스 내에서는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있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학교 가는 길 보드게임과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한 Raise Your Hand 사진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여자아이들의 삶을 다룬 영상을 상영했다.

히잡과 자라, 로지 역시 부스를 방문하여 함께 게임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알렸다. 부스를 방문한 한 할아버지는 한국 역시 어려울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한 여중생들은 우리와 같은 나이의 여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물었다며 앞으로 지구 반대편의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후원자가 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아동 결연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플랜코리아 부스에는 3일간 약 1,000여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도국 여자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플랜의 활동에 많은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었다.

플랜의 세 여자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 만든 여러 추억 중에서도 특히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방문과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았으며 앞으로도 자신들을 잊지 말고 지속해서 세계 곳곳의 여자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기를 당부했다. 플랜코리아 역시 세계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 본부와 회원국의 대표, 교육부 장관 및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일선의 담당자 등 1,500여 명이 모여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채택한 다카르 행동 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과 EFA(Education For All)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2015년까지 전 세계가 공유할 Post-2015 교육의제 수립 및 실천을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형평성, 포용, 양질의 교육, 평생 학습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접근성의 확대, 남녀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 및 환경 제공, 청년과 성인을 위한 학습 기회 증진, 교육을 위한 예산 확충, 세계 시민 교육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교육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본 포럼을 통해 확정된 '인천 선언(Incheon Declaration)'은 2015년 9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특별정상회의를 거쳐 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특별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반군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더욱 더욱 소외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 계속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까 두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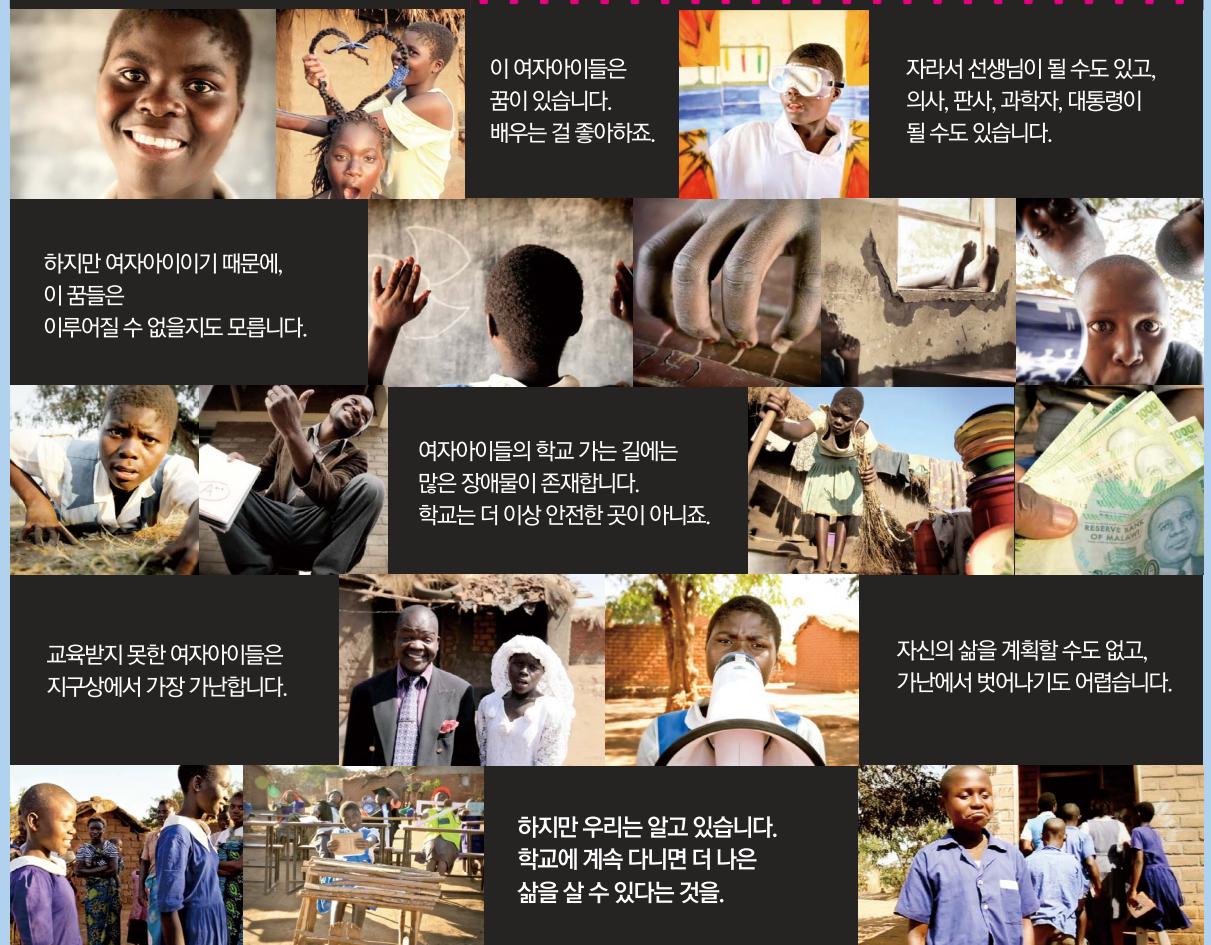


"파키스탄의 많은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거의 짐 취급을 받아요. 언젠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모든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전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파키스탄의 부모님들은 12~15세 여자아이들을 빨리 결혼시켜 가정 경제의 부담을 덜고자 조혼을 강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자아이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Because I am a Girl Campaign



여자아이들이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여자아이들의 이야기
(I'll take it from here)
영상 보기



여자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GIRL4PRESIDENT

여자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통해 개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여자아이인가요?

60만 명

남아 선호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여자아이들

6천 2백만 명

학교에 가지 못하는
여자아이들

4억 5천만 명

영양실조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여성수

3분의 2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HIV/AIDS 신규 감염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50%

성범죄 피해자 중
16세 이하 여자아이 비율

3명중 1명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개발도상국 여자아이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을 위해 전 세계 교육정책 입안자,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세계교육포럼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정했습니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 안에는 성과 관련된 폭력이 포함됩니다.

플랜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육포럼에 앞서 '밀레니엄 칠드런 (Millennium Children)'이라 불리는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그리고 등하고 길에서 겪는 일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행되는 성과 관련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폭력들이 교육의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며 시급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6천 2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육받으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교육포럼이 끝은 아닙니다. 세계교육포럼의 교육의제가 9월 UN 특별정상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플랜은 배우고, 읽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여자아이들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옹호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플랜과 함께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제의 중심에 여자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Girl4President에 참여해주세요!

손으로 날개 모양을 만들어 사진을 촬영한 후
해쉬태그를 달아 SNS에 올려 캠페인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향후 15년간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Plan Board 1



인도양의 진주, 실론티의 본고장,

스리랑카로 가는 The 좋은여행!

2015년 여름, 여덟 번째 “The 좋은여행”에
참여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기 간	2015년 8월 15일 ~ 8월 21일 (5박 7일)
지 역	스리랑카 Uva(우바)
모 집 인 원	고등학생 이상의 플랜코리아 후원자 14명 (가족 또는 지인 포함) *스리랑카 아동을 후원하고 있지 않으셔도 참가 가능합니다. *가족은 4인 이하로만 신청 가능
모 집 기 간	2015년 6월 5일 ~ 7월 5일 (선착순 마감)
프로 그램	15일: 출발 16일: 후원지역으로 이동/플랜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방문 준비 17일~18일: 후원아동 방문 및 플랜후원지역 견학 19일: 플랜후원지역 견학 마무리/오후 관광 20일: 오전 관광/한국으로 출발 21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 *세부 일정은 오리엔테이션 전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비 용	200만원 (항공, 숙식, 현지 교통비, 비자, 현지 교통비 및 프로젝트 후원금 등)
신 청 방 법	1. 참가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작성 2. 여권 스캔본과 함께 이메일(kno@plankorea.or.kr)로 접수 3. 선입금 20만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601-279750 (재)플랜한국위원회] → 신청 완료 (확인 연락 드립니다.)
문 의	02-790-5436 (월~금 오전9시~오후6시) 내선 411

*프로그램 및 경비는 현지 사정과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동결연을 통해 우리 마을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플랜은 1대1 아동결연을 통해 해외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플랜을 통해 현재 8,1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중심의 지역개발(CCCD: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을 통해 결연 아동을 포함하여 마을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결연 종료 사유

졸업 만 18세가 되어 플랜프로그램 졸업

이주 플랜 사업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

철수 마을이 발전하여 플랜현지사무소 철수

사망 후원아동의 사망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한 종료

일반적으로 후원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결연을 유지하게 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결연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부터는 기존 후원아동과 동일한 대륙, 성별의 아동으로 자동재결연되어 후원님께 아동자료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숲속해달별 어린이집 반짝반짝 빛나는



5월 에버랜드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석한 숲속해달별 어린이집 아이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되냐는 질문에서 시작해, 당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바자회가 열렸다. 바자회 수익금은 아동후원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네 살배기 여동생을 후원하고 있는
숲속해달별 어린이집의 반짝반짝 빛나는 후원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책을 수차례 읽어주었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책이에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 책을 다시 읽어줬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그 친구들도 선물을 받느냐고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난 후 아이들은 두 시간에 걸쳐 긴 회의를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만 받지 말고, 바자회를 열어서 그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왔죠. 바자회 준비 운영회가 구성되고, 처음에는 바자회 준비가 조금 귀찮았던 아이들을 설득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바자회를 기획하게 됐죠. 그렇게 아동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자회의 이름은 “반짝반짝 빛나는 가게”예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빛의 주인공들이었죠. 바자회 이후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많은 고민 끝에 종교색이 없는 플랜코리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결연할 아동의 연령대, 성별을 정했어요. 어떻게 후원하게 되는지 자동이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후원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아이들과 함께했어요.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네 살배기 여동생 오크타비아나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 아동 자료를 받잖아요. 사진을 보더니 너무 도 좋아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사

랑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크타비아나를 볼 수 있게 통로 창가에 사진을 하나 놓고, 교실 입구 물 마시는 곳 책상 위에 다른 사진 하나를 놨어요. 물을 마시며, 로션을 바르며, 사진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어요.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후원아동이 깊이 자리한 것 같아요. 출업한 아이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해 주었더니 한동안 메인 사진으로 해두더라고요. 뿌듯한가 봐요.

어린이집을 출업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많게는 하루에 수십 번, 적게는 일주일에 세 네 번씩 연락해요. 오크타비아나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때그때 알려줄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후원은 바자회로 쭉 이어나갈 거예요. 바자회가 잘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상추, 호박, 고추 등을 장날에 내다 팔아 수익금으로 후원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정 안되면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장날에 내다 팔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매년 숲속해달별 어린이집에서는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매년 반짝반짝 빛나는 가게를 열 생각이에요. 그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거예요. 플랜코리아에서도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불러주시면 아이들이 만든 귀한 작품들과 함께 날아가도록 할게요^^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그 두번째 이야기



다시 찾은 캄보디아는 우기를 앞두고 강렬한 태양을 토해내며 우리를 맞이했다. 이번 방문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드림빌리지 첫번째 프로젝트인 우물의 완공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드림빌리지의 구석구석을 돌보고자 드림팀이란 이름으로 꾸려진 봉사단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새로 건립한 우물이었다. 우리는 드림빌리지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우물공사의 마무리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드림팀과 함께 우물 펜스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방문에 후원아동인 책팩네 집 외벽공사를 할 때 넓고 오래된 공구들 때문에 공사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새 공구들을 준비해갔다. 마을 주민들도 함께 나서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우기를 앞두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더위 아래 땀 범벅이 되었지만 드림빌리지의 첫번째 프로젝트를 손수 마무리하겠다

모든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꿈꾸며 시작되었던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그 첫번째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 송재림 홍보대사가 다시 캄보디아를 찾았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드림빌리지는 단계를 밟아 지원할 예정이다. 첫번째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지원하는 일이고, 두번째가 아이들이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지원하는 일이다.

둘째날 우리는 드림빌리지의 두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될 보건소를 찾았다. 드림빌리지에서 지원할 슬랭스핀 보건소는 아주 작고 허름했지만, 인근의 17개 마을, 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어 거의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검진과 모기장 등을 나누어주며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허름한 보건소를 둘러보고 나니 어려운 숙제를 잔뜩 안고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후원으로 완성된 첫번째 과제를 생각했을 때 다음 프로젝트 역시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다짐해본다. 첫번째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드림빌리지를 함께 꿈꾸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본다.

송재림 홍보대사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간단한 협약식을 통해 허름한 보건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협약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도 어김없이 요리사님의 특별한 요리가 준비되었다. 함께 나누어 더욱 특별한 드림팀의 오늘의 메뉴는 돼지갈비와 카레였다. 배식을 위해 줄 서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함께 음식과 마음을 나누고 나니 멋들어진 보건소를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꿈꾸는 드림빌리지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점심식사 후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자전거 수리가 시작되었다. 마을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어 사전에 자전거를 수리해주기로 아이디어를 냈다. 어마어마한 수의 자전거가 드림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자전거에는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밝혀줄 태양광 전조등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팬들이 선물한 학용품을 나누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번째 방문을 통해 재회한 후원아동 책팩과 송재림 홍보대사는 이제 어느덧 한가족이 된 모습이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작별을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처음 만나 어색해 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나왔다. 보건소가 완공되고 다시 만날 그날엔 더욱 반가운 소식이 가득하길 기대해본다.



삼성물산과 함께 지역사회의 꿈을 실현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동남부로 100km 떨어진 촌부리(Chonburi)주 반 부앵 지역. 지난 4월 3일 삼성물산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 1개동 신축 및 기준 3개동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삼성물산 직원과 반 부앵 지역 주민 및 센터 학부모와 청소년, 그리고 플랜코리아 및 플랜태국 담당자가 참여해 한마음으로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태국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삼성물산의 해외현장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드림 투모로우(Dream Tomorrow)의 두 번째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까지 센터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후 내년 5월까지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30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이수 후 실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A/S) 과정을 신설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태국 내 늘어나는 실업 청소년 취업 지원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기간 중 인근 현장 직원들이 수시로 직업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정서 및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삼성물산은 드림 투모로우(Dream Tomorrow) 1호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렘방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해 13년 11월에 완공하였다. 또한 해외아동과 임직원들이 일대일로 결연, 지역사회 개발 및 아동 교육을 후원하는 사업도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삼성물산은 드림 투모로우 사업과 해외아동 일대일 결연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중이다.

삼성물산은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Dream for Safety(재난복구 지원), Dream for Environment(주거환경 개선), Dream for Education(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선정, 감사Dream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현장 증가에 따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또한 활발하다. 모로코·싱가포르·몽골·카타르 등에서 환경 정화활동 및 교육시설 개보수 활동, 지역주민과의 친정성 있는 소통활동으로 감사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희망 레인보우 사업, 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Myanmar



미얀마는 과거 1948년에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버마연방(Union of Burma)’이라는 국명을 사용하였고, 1989년 군사정부에 의해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2010년 10월 21일에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들은 국민적 동의 없이 변경된 국명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버마’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0%가 불교도이다. 미얀마 주민들은 일생의 많은 문제를 승려와 상의할 정도로 불교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도와의 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2012년에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과 불교 간의 분쟁으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14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탈출했지만,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로힝야족의 해상난민 문제는 유엔에서도 ‘거대한 인도주의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다.

미얀마는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의 약 14.8%만이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몬순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삼림은 국토의 48%를 차지하며,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산림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과도군사정부체제의 정치 상황 문제로 인해 세계은행,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투자와 원조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위 치: 인도차이나 북서쪽
수 도: 네피도(Naypyidaw)
언 어: 버마어
면적: 676,578km² (한반도 면적의 약 3배)
인구: 55,746,253명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종교: 불교 89.5%, 기독교 5%, 이슬람교 4%, 힌두교 0.51% 등
GDP (1인당 기준): 1,270\$ (세계 153위, 2014년 기준)



보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약품도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과정도 무료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용 능력 부족과 빈곤으로 인해 진학률이 높지 않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사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맹률은 1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교육과정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 4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대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플랜미얀마에서는?

플랜은 2008년 나르기스(Nargis) 태풍 이후부터 미얀마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태풍 피해 후 긴급구호,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교육, 영유아 보호 및 학교 건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플랜미얀마의 최초 목표 지역은 에이야르와디(Ayeyarwady), 사가잉(Sagaing), 라카인(Rakhine), 만달레이(Mandalay) 지역으로, 주로 지역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지원시설(ECCD),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영양 및 보건 활동, 식수개선, 재해위험관리 등의 활동이 진행 중이다.

플랜의 활동으로 현재 194,00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플랜코리아와 함께 하는 활동

2014년 11월, 플랜코리아와 현대제철은 미얀마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개설하였다.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만달레이 주 식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따웅비라이 지역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웅비라이 지역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식수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 참여율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랜코리아와 현대제철은 농업기술 및 직업기술 훈련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중심의 개발을 통해 마을의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그 외에 플랜코리아에서는 The 좋은선물을 통하여 영유아보육 센터(ECCD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는 플랜미얀마와 1대1 아동결연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그림찾기

틀린 그림을 (5개)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참여방법 하나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참여방법 두울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TALK

@플랜코리아
친구추가하세요

✓ 봄호 이벤트 당첨자

박혜민, 이서현, 전진희, 정중연, 허남은 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5년 가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HSBC은행 여성위원회, 세계여성의날 맞아 후원금 전달

HSBC은행 여성위원회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모잠비크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매년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HSBC은행 여성위원회는 라오스 유치원 건립, 태국 여학생 장학금 지원, 라오스 여자아이들을 위한 식수위생 시설 지원, 네팔 소외지역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등 플랜코리아와 함께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후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 전달된 지원금은 모잠비크 인함바네도 잔가모군의 산모들을 위해 산모 입원실 건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잠비크에서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산모 사망은 시기적 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라이트업', '애플트리' 통해 지구촌 아동 돋기 지원

플랜코리아가 '라이트업', '애플트리'와 후원활동을 시작한다. 2014년에 설립된 사회적 스타트업 기업인 블루에그의 '세상을 밝히는 소셜네트워크' 라이트업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바일 앱' 애플트리는 둘 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은 일상 속에서 배운 나눔이나 미담 등을 공유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해 포인트를 모으고, 포인트를 이용해 소액기부 또는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운동과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라이트업'과 '애플트리'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플랜코리아는 앞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는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을 기념해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토고 어린이들에게 희망' 캠페인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자녀와 토고 아동 간 일대일 결연을 맺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물 부족과 오염 문제를 주제로 한 사전 전시와 물동 이를 옮겨보는 물동이 체험, 트릭아트 포토월 사진 촬영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2014년 토고 아베지 마을에 초등학교 건립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임직원 아동결연을 통해 토고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5월 20일에 열린 나눔 소통 행사에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백진희가 참여해 나눔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스마일게이트, 네팔 지진 피해 돋기 모금 캠페인 펼쳐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스마일게이트가 네팔 지진 긴급모금 캠페인을 펼친 후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스마일게이트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사내 카페에 플랜코리아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네팔 대지진 현황을 안내하고 모금을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임직원 사내 모금 행사를 통해 네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베트남과 중국에 영유아개발(ECCD) 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건국고등학교 캄보디아 식수타워 지원 협약식

건국고등학교와 캄보디아 식수타워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건국고등학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에 건립될 식수타워는 하루 1만 리터의 식수를 정화,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음용 가능한 식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비위생적인 물을 마셔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식수타워를 통한 식수 위생 환경 개선은 물론 식수 위생 관련 의식 개선과 보건 수준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매년 '더불어 사는 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회 주도 하에 전교생들이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플랜과 바이탈 보이스 글로벌 파트너십, 영화 '인도의 딸' 시사회 주최

3월 10일 뉴욕에서 플랜인터내셔널은 바이탈 보이스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레슬리 우드윈 (Leslie Urdwin)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인도의 딸(India's Daughter)' 미국 시사회를 주최했다. 이 영화는 인도를 충격에 빠뜨린 뉴델리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여파를 디테일하게 보여주어 전세계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을 향한 폭력에 대한 논의를 뜨겁게 달군 영화로, 인도 정부에서는 이 영화를 인도 내 상영금지 처분을 내려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 영화는 여성비하에 대한 뿐만 아니라 폭력과 학대를 당하기까지 한다. 플랜은 아동매매반대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여자아이들을 구출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제공 및 소액대출과 신용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신데렐라, 그 진짜 이야기 아동매매를 끝내야 합니다.

영화 '신데렐라' 개봉을 맞아 토고에서 '신데렐라, 그 진짜 이야기'를 발표했다. 토고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무보수의 가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이모나 언니와 같이 친밀한 사이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토고의 수도인 로메 지역으로, 이웃 국가인 나이지리아나 베냉으로 매매된다. 아동매매의 피해 아동들은 신데렐라처럼 설거지와 요리, 청소, 아이를 돌보는 일 등 모든 가사를 도맡아 한다. 이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폭력과 학대를 당하기까지 한다. 플랜은 아동매매반대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여자아이들을 구출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제공 및 소액대출과 신용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환경미술대회, 베트남 어린이들 참여

올해로 36회를 맞는 그린 롯데 어린이 환경 미술 대회'에 베트남 제3롯데스쿨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롯데백화점의 지원을 통해 개교를 앞둔 제3롯데스쿨 학생 총 81명이 4월 17일 현지에서 미술대회에 동참했다.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본 미술대회에 참가한 현지 베트남 아동들에게 롯데백화점은 학용품과 미술도구를 선물로 증정했으며, 참가 학생 중 4명의 학생들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입선한 학생들은 지난 6월 18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베트남 제3롯데스쿨 완공식에서 상장을 수여 받으며, 완공식 참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 아직 끝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9일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종결국으로 선언되었다. 라이베리아는 에볼라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1만564명이 감염되어 그 가운데 4,716명이 숨졌다. 에볼라로 인해 사회 기반시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보건서비스는 붕괴되었으며,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에볼라 발병이 종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피해는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에볼라 종식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플랜은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식량 지원과 생계 지원을 진행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등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세계 난민,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지중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 난민은 5천 2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차 대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지중해를 건너려는 피난민들이 전례가 없는 수로 급증했고, 이로 인해 2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수천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마을을 떠나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60%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어린이들이다.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부룬디에서는 대통령의 3선 출마 선언 이후 내전이 발생했다. 이 내전으로 10만 5천여 명의 국민이 유혈 사태를 피해 탄자니아, 르완다 등 주변국에 피난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들이다.



여름엔 아이스텀블러가 좋아요!

튼튼한 2중 구조로 제작되어 오래도록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쑥 들어오는 플랜 아이스텀블러로
지구촌 어린이들을 돋고, 환경도 보호해주세요.



향긋한 설레임 플랜 소이캔들

고단하고 지친 하루,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100% 천연 소이왁스로 만든 플랜 소이캔들을 구매해보세요!
프리미엄등급의 프래그런스 오일의 은은한 향기와 나무심지의 장작이
타는 듯한 타닥타닥 소리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PlanShop
www.planshop.co.kr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플랜샵에서 구매해보세요.



구입 및 문의: 플랜샵
www.planshop.co.kr
02-516-5108

